

보도시점

2026. 3. 18.(수) 11:00

배포 2025. 3. 17.(화)

## 기후위기에 맞설 똑똑한 물기술 부산에 모인다

- 대한민국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6), 3월 18일 벅스코에서 개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유정복)는 국내 우수 물관리 기술과 물산업을 알리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6)’를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로 물산업 관련 기업,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 해외구매처 등이 참여하며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3회차를 맞이했다.

올해 박람회는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 미래(Smart Water Blue Future)’를 주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기업, 해외구매처, 정부 관계자 및 학계 등을 연결하는 협력과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가 기후위기 속에서 첨단산업의 물수요 증가를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는 216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물관리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기술 등 최신 물관리 기술 및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해외구매처 60여 개사를 초청한 물산업 수출 및 구매상담회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물기술 및 물산업 국제토론회(컨퍼런스), △국제 하수감시 학술회(세미나), 미래물포럼, 상하수도 업무개선사례 발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국내외 물관리 기술 및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또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과 환경산업 청년 일자리 박람회도 함께 열려 물분야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발굴한다.

3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등 주요 인사가 함께 물산업의 세계적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물관리 분야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물기업의 창업부터 기술실증 및 해외수출까지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제물산업박람회 행사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김선아 (044-201-7640)



□ 행사 개요

- (개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 물산업 전시회로 물산업 우수제품 전시, 세미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물산업 활성화를 도모
- (주제) ‘Smart Water Blue Future’
- (일시/장소) ‘26.3.18.(수)~3.20.(금)/ BEXCO 제1전시장·컨벤션홀(부산)
- (주요행사) 물산업 전시회\*, 수출상담회, 세미나, 국제교류 등
  - \* (전시규모) 기업 216개사 609개 부스
-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한국상하수도협회장 등

□ 개막식 ⇒ ‘26.3.18(수), 11:00~12:30

구분	시간		내용	장소
본행사	11:00~11:05	'5	·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제1전시장 내 개막식장
	11:05~11:15	'10	· 개회사	
	11:15~11:25	'10	· 환영사	
	11:25~11:35	'10	· 축사	
	11:35~11:45	'10	· 물관리 유공 포상 수여 (대통령 표창 2인, 국무총리 표창 2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4인)	
	11:45~11:55	'10	· WATER KOREA 비전선포식	
	11:55~12:00	'10	· 기념사진 촬영	
	12:00~12:30	'30	· 전시부스 관람	